

“시는 제 전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배세복 시인 ‘목화밭 목화밭’ 펴내
유년시절 내면의 상처 극복 이야기
시는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



소리로 시집 발간과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신춘문에 등단 후 ‘문학동인 Volume’ 회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발표하고 공유할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제 창작활동에 ‘날개를 달아준’ 측면이 있죠. 첫 시집 이후 1년 6개월만에 두 번째 창작집을 펴내게 되었으니까요.”

이번 작품집의 주제는 ‘어두운 내면과 그 상처의 극복’이다. 김상호 시인이 “그가 상처를 이야기할 수록 독자는 시에 숨어 있는 온전했던 세계의 상징들을 찾게 된다”는 평처럼, “세상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목화꽃은 이상하기도 하지 멀리서 볼 때만 한없이 아름다운 꽃이었네 두둥실 흘러갈 것만 같은 꽃이었네 아무리 따도 바꾸는 채워지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멀리서만 그러하였네”(‘목화밭 목화밭’ 중에서)

표제시 ‘목화밭 목화밭’은 객관적 상관물인 목화꽃에 감정을 이입한 작품이다. 꽃과의 적당한 거리를 통해 화자는 나뭇의 상처를 다스리고 극복한다. 넘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는 슬픔을 위무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아련한 감성을 선사한다. 이렇듯 시인은 “어쩌면 사람들이 희망하는 꿈은 슬픔을 배경으로 하고 그 슬픔은 꿈을 끌어내는 기폭제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한다.

사십 대가 되어서야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탓에 그는 더욱 창작에 정진한다. 등단 이전에는 시인이 되면 평장히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사실은 “시에 더 신경이 많이 가고 더 많이 써야만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게으른 저를 용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싫다”는 말에서 시인으로서의 자존감, 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태도가 읽혀진다.

교사를 하면서 창작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방학 기간을 활용한다. 그 기간에는 의무적으로라도 하루 한 편 쓰고 다음 날 퇴고를 한다. 아울러 철학이나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 독서를 통해 지양분을 얻기도 한다.

시를 쓰고자 하는 학생과 일반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물었더니 ‘길게 보고 가라’고 조언한다. “필요 없이 펜을 놓지 말고 꾸준히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늘어서까지도 늘어가는 모습을 시로 담아내는 일”이 시인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저에게 시는 ‘아직은 내 전부가 아니지만 전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앞으로도 부지런히 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시는 제 전부가 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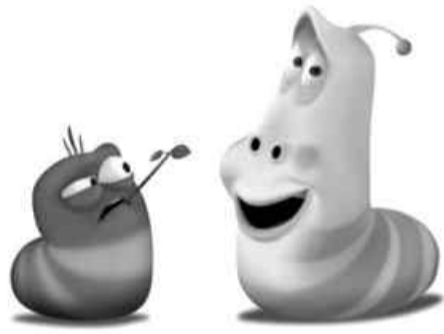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66회 호남예술제 무용 입상자

한국무용	현대무용, 실용무용	▲동상
<심사위원> 박선옥 (광주여자대 교수) 차은희 (고구려대 교수)	<심사위원> 임지형 (조선대 교수) 여순심 (광주여자대 교수)	1 고가연 (순천여자고3) ◇밸리댄스 독무 중등 3학년
◇전통무용 독무 초등 5.6학년 ▲동상 1 조은비 (유촌초5) 2 송주화 (태봉초6)	◇현대무용 독무 초등 5.6학년 ▲동상 1 김보민 (상일중2) ◇전통무용 독무 고등 1.2학년 ▲은상 1 김연우 (광주예술고2) ▲동상 2 김보이 (광주예술고2) 3 정현정 (광주예술고2)	◇밸리댄스 군무 초등 연합 ▲동상 1 박소희 외 3명 (초등 연합) ◇합창 독무 고등부 3학년 ▲동상 1 김재은 (성덕고3) ◇합창 군무 초중고 연합 ▲금상 1 이은지 외 9명 (초중고 연합) ◇결사합창 독무 중등 1.2학년 ▲금상 1 변지원 (금암중2) ◇결사합창 독무 중등 3학년 ▲은상 1 이시현 (금호중3) ◇결사합창 독무 고등 3학년 ▲동상 1 최은빈 (서진여자고3) ◇악기 독무 고등부 3학년 ▲동상 1 이민서 (광남고3) 2 장현정 (동아여자고3) ◇코레오 독무 중등 1.2학년 ▲금상 1 선지연 (풍암중1) 2 조은아 (풍암중2) ◇코레오 독무 중등부 3학년 ▲동상 1 김은솔 (순천동산여자중3) ◇코레오 독무 고등부 3학년 ▲동상 1 현경인 (2003년생) 2 변혜민 (순천여자고3) 3 박주현 (순천효산고3) ◇코레오 군무 중고 연합 ▲금상 1 현경인 외 6명 (중고 연합)
◇전통무용 독무 중등 1.2학년 ▲동상 1 김보민 (상일중2) ◇전통무용 독무 고등 1.2학년 ▲은상 1 김연우 (광주예술고2) ▲동상 2 김보이 (광주예술고2) 3 정현정 (광주예술고2)	◇현대무용 독무 고등 1.2학년 ▲금상 1 남경민 (호남삼육고2) 2 서재원 (광주예술고2) ▲은상 1 최영호 (광남고2) ▲동상 3 강윤채 (동아여자고2) ◇현대무용 독무 고등 3학년 ▲최고상 1 최여진 (광주스피아여자고3) ▲은상 2 양서원 (대성여자고3) 4 문정웅 (광주예술고3) ▲동상 3 심연우 (동아여자고3) ◇현대무용 군무 초중고 연합 ▲최고상 1 문정웅 외 10명 (초중고 연합) ◇방송댄스 독무 초등 5.6학년 ▲동상 1 장상아 (한아름초5) ◇댄스스포츠 독무 고등 3학년	

어린이 손잡고 ‘애니메이션+클래식’ 공연 어때요

광주시향, 5월 3~5일 문예회관
‘라바와 함께하는 키즈 클래식’



의 지휘와 MC용일의 사회로 진행된다. 라바의 두 주인공 ‘레드’와 ‘옐로우’가 어린이들과

과 함께 교감하며 벌어지는 좌중우돌 스토리를 담은 공연은 3D 애니메이션으로 꾸며지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기발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선사한다.

브람스 ‘헝가리 무곡’,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 클래식 명곡들을 들려준다.

공연 티켓은 전석 1만원(관람 36개월 이상, 어린이 및 청소년 50% 할인)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설계공모 ‘같은 공간, 다른 시간’ 당선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에 ㈜우리동인 건축사사무소, ㈜제이유 건축사사무소 공동등도 작품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사진)이 선정됐다.



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기존 박물관과 조화되면서 상호 연계성을 높이도록 설계한 ‘같은 공간, 다른 시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신축 도자문화관이 본관과 정원을 향해 열린 공간으로 구성돼 전시 동선과 서비스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설계공모를 시작해 모두 8개 작품을 접수받았으며 기술심사 및 본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포함해 7개 작품을 선정했다.

한편 박물관 부지 내에 건립될 도자문화관은 연면적 7204㎡, 총 사업비 295억원을 들여 전시실, 수장고, 보존처리실, 도서실 등이 위치할 예정으로, 올해 설계를 시작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